

한국 제주 DAY in 삿포로 눈축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2월 8일~11일 홋카이도를 방문했습니다. 홋카이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1월 우호협정을 맺고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2월 8일에는 홋카이도 주최 환영만찬회가 열려 나카지마 국제극장과 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양 지역의 교류 촉진을 재확인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홋카이도청에서는 매년 제주와의 우호 협정을 기념해 제주를 소개하는 제주DAY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2월 9일 삿포로 눈축제 행사장에서 2회 각30분에 걸쳐 제주DAY를 개최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주삿포로한국총영사관 주최로 개최된 'Korea Sound Bridge'에도 출연한 제주를 대표하는 밴드 '사우스 카니발'이 제주도의 방언을 넣은 노래 등 신나는 노래를 부르며 행사장의 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도중에 홋카이도청 문 국제교류원이 제주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했고 2회째에는 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의 인사말도 있었습니다. 제주DAY를 통해 많은 도민 및 관광객에게 홋카이도와 제주의 우호 관계와 제주의 매력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또 대표단 일행은 삿포로 눈축제 실행위원회 사무국을 방문해 세계적인 축제가 된 삿포로 눈축제의 운영 상황 등을 배우고 제주의 최대 축제 탐라문화제에 참고로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연수단 홋카이도 방문

2월 21일(목)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김홍국 학교교육과장을 비롯한 고교교육 연수단이 홋카이도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홋카이도의 교육 상황을 배우고 제주도의 교육개혁 추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로 연수단 일행은 홋카이도 교육청 교육정책과 이마무라 주간에게 홋카이도 교육의 현상과 과제에 대한 발표를 듣고 질문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관광객 긴급 서포트 스테이션 개설 훈련

홋카이도는 재해시 안심할 수 있는 관광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3월 14일 홋카이도청에서 관광객 긴급 서포트 스테이션 개설 훈련이 있었습니다. 재해시 귀가, 귀국이 어려운 관광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홋카이도청 관광국이 관광객 긴급 서포트 스테이션을 개설해 정보 제공, 통역 등 관광객을 지원합니다. 14일의 훈련은 큰 재해가 일어났을 때를 가정한 훈련으로 국제교류원과 도내 외국인 등이 참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원 문지선입니다. 지난 5년간 홋카이도청에 근무하며 아카렌가통신을 발행했는데 이번 호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카렌가통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